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19. 6. 21(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유 럽

- 스페인, 갈라시아 무장독립단체 리더 2명 검거
 - 6.17 AFP통신은 테러단체로 지정된 '레스스텐시아 갈레가*'의 리더로 '06년부터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해 온 「안톤 가르시아」와 「아순시온 로사다」를 갈라시아 비고에서 스페인 경찰이 체포했다고 보도
 - * 스페인 북서부 갈라시아의 분리독립을 목표로 설립된 극좌성향의 무장투쟁 조직으로 총 60여건의 폭발사건 배후로 추정

아 · 태평양

- 뉴질랜드, 모스크 총기테러영상 유포자에 징역 21개월 선고
 - 6.18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3월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2곳에서 발생한 총기테러영상 2건을 지인 30명에게 유포한 사업가 「필립 아르프스」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
 - *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사실상 증오범죄이며 대량학살을 부추긴다고 언급

중 동

- 이란 혁명수비대, 새로운 자금원 확보해 親이란 무장조직 지원
 - 6.17 주요외신은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및 이라크內 건설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여 후티 반군 등 親이란 무장조직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

○ 예멘, 內戰 4년간 9만여명 사망자 발생

- 6.19 AP통신은 ‘무장 분쟁지역 및 사건데이터 프로젝트’*가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 '15년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으로 9만1,6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올해에도 1만1,9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

* 美 국무부와 네덜란드 외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예멘 및 국제 언론매체, 국제기구들의 뉴스 보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망자 숫자를 통계

미 주

○ 美, 反유대주의 표출 및 총기난사 위협 남성 체포

- 6.17 AP통신은 美 캘리포니아 경찰이 온라인에 反유대주의 메시지를 표출하며 유대교 회당에 총기난사를 하겠다고 위협한 20대 남성*을 체포하여 범죄위협 및 자동소총 제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

*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총격사건의 용의자를 ‘영웅’이라 부르며, 당시 사용되었던 AR-15 계열 반자동 소총과 나치 관련 문헌 등 보유

○ 토론토 랩터스팀 NBA우승 축하행사 중 총격으로 4명 총상

- 6.17 농구단 토론토 랩터스가 미국프로농구(NBA) 2018-2019시즌 챔피언에 등극한 기념으로 토론토市에서 개최한 대규모 축하행사 도중 총격이 발생하여 4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총 2정을 확보하고 3명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

아 프 리 카

○ 가나, 피랍된 캐나다인 여성 2명 구출

- 6.12 가나정부는 대테러작전을 통해 6.4 가나 쿠마市의 한 골프장에서 피한들에게 피랍된 캐나다 국제개발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여성 2명을 구출했다고 발표

* '19.4월에도 쿠마市에서 인도 국적의 남성 1명이 몸값을 노린 무장괴한에 피랍됐다가 경찰에 의해 구출

케냐 휴양도시 음페케토니(Mpekitoni) 테러

- '14.6.15 20:00경 케냐 해안 휴양도시 음페케토니(Mpekitoni)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격을 가해 48명 사망
 - 당시 관광객과 주민 대다수가 브라질월드컵 응원에 열중한 틈을 타 무장괴한 50여명이 경찰서, 호텔 4곳, 쇼핑센터 등 마을 곳곳을 다니며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방화
 - 피해자 가족들은 무장괴한들이 이슬람교도가 아니거나 소말리아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사살했다고 증언
-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이슬람 성직자들을 살해*한 케냐에 복수하기 위해 테러를 했다”고 주장
 - * '13.10.3 케냐의 몸바사에서 이슬람 성직자 「이브라함 아마르」가 탄 차가 무장괴한에게 습격당해 그와 함께 있던 성직자 등 4명이 사망



테러 상식

Weekly Terrorism Trends

<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 >

- (배경) '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라르를 기습한 체첸 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90년대 중반 미국의 극우 인종주의자 「앨릭스 커티스」가 백인 우월자들에 대한 독자적 행동 선동에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로 변화
- (특징) △배후세력 없이 특정 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해 테러를 자행, △소프트타겟(Soft target)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인명피해 우려, △흥기·트럭 등 로테크(Low tech) 수단을 이용해 테러 시점·방식에 대한 정보수집이 쉽지 않아 예방·추적이 어려움
- (주요테러) '95년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테러사건 「티머시 맥베이」
 '12년 프랑스 툴루즈 유대인 학교 총기난사 사건 「모하메드 메라」
 '13.4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차르나예프」 형제
 '14.12월 호주 시드니 도심 카페 인질극 「만 하론 모니스」 등